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대통령이 위험하다!

박 명 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다. 8월 초부터 30% 전후에서 내림세를 보이며 '주별 평균 33% 31% 30% 29%'로 이어진다. 4월 총선 직후의 주별 평균 28%에 접근한다. 윤 대통령 취임부터 8월 하순까지 총 1076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주별로 보면 일정한 흐름이 보인다. 1076개 중 면접조사가 356개, ARS가 720개로 120주 동안 주별로 평균 9개의 여론 조사가 있었다. '대통령 국정운영의 긍정(부정)평가'로 측정되는 지지율은 윤 대통령 취임 직후에서 지방선거까지 주별 평균 50%를 넘었다가 바로 30%대로 추락한다.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까지 2022년 말과 2023년 초 그리고 작년 6월 잠시 주별 평균 40% 언저리까지 올랐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30% 초반에 머문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세는 주요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조사 기관마다 최저치 기록에 육박하는 모양새다. 갤럽 기준으로 보면 지난주 대통령 지지율은 5월 마지막 주 2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지지율 23%를 기록한다. 3월 마지막 주 30% 중반까지 올랐던 지지율은 이후 20% 중반에서 횡보한다. 갤럽 조사도 1076개 조사의 주별 평균흐름과 유사하다. 대통령 지지율은 2022년 6월 평균 49%, 7월 평균 32%였지만 8월 이후 20%대로 하락한다. 2023년 대통령 지지율은 30% 초중반까지 오르지만 2024년 4월 총선 후 계속 20%대다. 갤럽조사는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여론을 반영하지 않았다. 조사는 국정브리핑이 있었던 날까지 이뤄졌는데 여론에 영향을 일부 미쳤다 하더라도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리얼미터 조사결과를 보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은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조사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은 8월 중순 이후 계속 하락하다 이번에 반올림으로 간신히 30%를 기록한다. 같은 조사의 2년 만의 최저치로 30%가 무너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 전국지표조사(NBS)가 주목된다. 여기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세로 '30% 29% 27% 흐름'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줄어드는 양상도 같은 맥락이다.

주별 평균이든 최근 조사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윤석열 지지층의 붕괴'다. 보수층과 영남 그리고 70대 이상의 일부가 지지를 철회하면서 대통령의 핵심 지지그룹이 해체되는 양상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지자의 57%, 70대 이상에서 50%의 지지"를 받는다. 특히 충청 지지세의 약화가 주목되는데 '대통령 지지율 20% 하향 돌파의 관건'이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세는 '구조적 요인과 상황변수의 복합적 결과'다. 민생과 체감 경기의 어려움이 더 악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고통이 심각하다.

"응급실 뺑뺑이"로 상징되는 의료대란은 돌발 변수다. 지금 '응급실 위기'를 진화할 수 있느냐가 의료개혁의 아킬레스건이 된 상황이다. 의료계 곳곳에서 "정부 발표와 다르다"는 아우성이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응급실 붕괴 상황 아니다"라며 맞섰다가 결국 "현장의 어려움을 인정한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확고하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한다.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국민의 생명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다"면서 "문제는 대국민 홍보"라고 믿는다. 핵심은 대통령이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정상적인 국회"고 "소설 같지도 않은 계엄령설"을 퍼트리는 야당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개혁은 험난한 과정으로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정치적으로 실천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은 "감정적 거부감"이다. 대부분의 신문으로부터 "도를 넘었다", "납득하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협량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대통령이 과연 정치와 대한민국 공동체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의심이다. '마이웨이의 독선 리더십'은 지지했던 사람들을 하나 둘 떠나가게 하고 지금 지지하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다. 샐러리맨이 되어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는 여당의원들의 비겁함도 사람들을 화나게 한다. "여의도 장총찬"은 "국민감정 못 따라가는 정치인은 역사의 간신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대통령과 여당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종교칼럼

그래도 내 자리에서는

황 성 호
신부
광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부국장

상식에 벗어나고 예의가 없으며 쏟아내는 말이 저급하고 폭력적이며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말과 행동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만드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참 버릇없고 어리석어!'라고 속으로 되뇌인다. 혹여 엮이고 싶지 않으려는지 밖으로 소리 내 '참 버릇없고 어리석네!'라고 내뱉지 못하지만, 이미 속내는 거리를 둔다. 왜냐하면 위험이 도사리고 악취가 진동하는 곳을 선택해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오염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방어기제가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상식과 예의 없고 저급하고 폭력적이긴 하지만 무슨 이득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끔 내 마음을 끌어당기기도 한다. 소유와 욕심 그리고 탐욕으로 이어지는 강한 유혹이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안되지!'라며 자기반성 작용을 통해 유혹을 뿌리친다.

정의롭게 사는 것, 깨끗하게 부정 없이 사는 것, 예의를 갖추면서 강하지만 부드럽고 상대를 품어주려고 한다. 이런 이유는 '나' 또한 그렇게 대해주어야 하는 소중한 존재이며, '너'라는 타자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대하면 그렇게 똑같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신약성경 갈라티아서 6장 7절의 말씀인 "사람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는 법이다"와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는 사자성어도 떠오른다.

어릴 적, 고향 집 논에 모내기를 하고 물을 대는 집안 어르신들의 말씀이 기억난다. "땅은 거짓이 없어야!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지! 땅은 하는 만큼 돌려준다니까!" 생명과 희망의 말이었고, 노력의 대가는 절대 삶을 속이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들었다. 지금도 이 마음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작금의 세상은 얍삽하고 잔머리를 굴리며 비겁하고 이기적이어야만 살아남는 세상으로 변해버린 지 오래다. 매사의 삶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이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 이런 삶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이라고 조소하며 비웃기까지 한다. 과연 그럴까?

불의와 비리는 창피함도 없이 저지르고 악취가 진동하는 끝없는 탐욕의 광기를 부리는 이들은 천박한 자본주의를 논리와 객관을 들먹이며 합리화한다. 이러한 광기는 이기적인 집단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어느 한 개인에게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합리화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정의이고 불의인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별도 없이 우리의 기초적인 질서까지 무너뜨리는 악의 속삭임이다. 처음부터 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작금의 불편하고 당혹스러운 시대가 어디에서 시작되어 이렇게까지 어리석게 되었는지 묻고 싶을 뿐이다.

우리는 어떨 때 어리석어지는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극한 이기심이 작용할 때, 소유하려는 욕심이 강하여 탐욕을 부릴 때 어리석어진다. 극한 이기심과 탐욕은 자신의 눈을 멀게 한다. 다시 말해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폭력적이고 무자비하고 잔인하다. 극한 이기심과 탐욕은 우리가 약속했던 가장 기본적인 질서마저도 쉽게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길을 갈 뿐이다. 그래서 악취가 진동하고 폭력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다.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슬프거나 고통스럽거나 죽더라도 그저 자신을 위해서만 걸어가기에, 다른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도 전혀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최근 우리는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되뇌이는 지도 모르겠다.

바오로 사도는 자신 존재의 약함을 자랑하였다. 진정한 힘과 변화는 자신의 약함에서 드러나고, 자신이 목숨을 다해 전하려 했던 예수의 구원과 사랑은 작고 약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코린토 전서 1장 25절에서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정의롭게 진실하게 선하게 그리고 상식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면 좋겠다. 그럼 작금의 세상에 한숨보다는 희망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기 고

9월 동행축제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조 종 래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추석이 어느덧 성큼 다가왔다. 추석은 설날과 함께 가장 큰 민족 대명절로 그 동안 떨어져 지낸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누며 안부를 묻는다. '더도말고 덜도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집집마다 명절 음식을 장만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명절 선물을 주고 받는 등 추석만큼은 풍족하게 보낸다. 이렇듯 추석은 전통적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데 요즘 추석 대목을 앞두고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고물가로 소비자 지갑이 닫히고 특히 올 여름은 유례없는 폭염으로 소비가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7월 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8월 28일에는 추가적으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내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추석을 맞아 내수 촉진을 위해 오는 9월 28일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행사인 9월 동행축제를 개최한다. 지난 5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인 동행축제는 베트남 하노이 개막식을 시작으로 32일간 전국에서 펼쳐진다.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동행축제에 발맞춰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동행축제 기간 지자체가 개최하는 각종 지역축제 프로그램에 지역 중소·소상공인 우수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특산품 판매전'을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진행한다. 9월 5일, 추석맞이 광주 전통시장 장보기 한마당을 시작으로 7일은 1913송정역시장 가을맥주축제, 그리고 13일부터는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지역특산품판매전이 열려 우리 지역 특산품을 행사현장에서 판매한다. 공영홈쇼핑, 소담스퀘어광주와 함께 진행하는 라이브커머스는 축제현장에서 색다른 볼거리와 함께 우수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13일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현장에서 공영홈쇼핑은 라이브로 영광 특산품을 전국에 소개하고, 5일 광주시청 잔디광장과 20일 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광주 전통시장과 지역 청년상인이 준비한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지역 대표상권과 전통시장에서도 다양한 행사와 공연, 경품이벤트를 준비하여 고객에게 볼거리·즐길거리·살거리를 제공한다.

송정역세권은 난장콘서트(9월7일), 진도남문로상권은 홍주토크콘서트(9월27일), 해남원도심상권은 추석사은행사(9월2~8일)와 땅끝달달 문화야행(9월27일), 순천원도심상권은 썸머나이트(9월 첫주)를 열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동구 대인시장은 구매영수증 이벤트(9월12~14일), 나주목사골시장은 어린이 장보기 체험(9월24일), 고흥전통시장은 고객 경품행사(9월11~12일),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은 칙칙폭폭놀장(9월28일), 장흥정남진토요시장은 한가위행사(9월12일), 함평천지전통시장에서는 고객 경품행사(9월12일)를 개최하는 등 광주·전남 전통시장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또 나주목사골시장(9월7일, 9월21일, 9월28일), 동구 대인시장(9월7~11월25일 매주 토요일), 고흥전통시장(9월27~10월12일, 매주 금·토)은 야시장을 열어 가을밤의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9월 동행축제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여러 향토기업이 참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활력회복을 응원한다. 광주은행, 프로축구단 전남드래곤즈, 그리고 보해양조가 동행축제 기간 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 활력회복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송출한다.

작지만 강한기업인 느린먹거리, 갱소년, ㈜올댓네이쳐 등도 자사 제품을 동행축제 기간 할인판매에 나선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전통시장 모두 걱정이 앞서는 요즘 정부에서는 동행축제로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제품을 구매하고 소상공인·전통시장은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지자체, 향토기업, 전통시장이 함께 힘을 모아 동행축제를 준비했다.

최근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소상공인·전통시장이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번 동행축제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싶다.

社 說

연금개혁안…여야 서두르되 세대 차등 없어야

정부가 21년 만에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그제 발표했다. 개혁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리는 방안과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제시했다. 정부가 스스로 단일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험료율(내는 돈)을 더 빨리 올리는 내용 등 자칫 세대 차등이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날 연금개혁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대통령 제안은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근사치 의견 접근을 이뤘던 '내는 돈'(보험료율) 13%·'받는 돈'(소득대체율) 44% 안으로 다시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서둘러 국회 내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연금개혁안이 성사되려면 절대 다수의 야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정부안과 민주당 안의 차이가 '받는 돈'(소득대체율)의 '2%포인트'인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는 여야가 국회에서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민주당은 연금개혁안 가운데 '받는 돈'의 비율,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 적용, 자동조정장치 등에 크고 작은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합의해 처리하는 것은 또다시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여야가 의견 접근을 봤거나 가능성 높은 부분부터 처리해야 할 것이다.

전남 워케이션 열풍, 지역소멸 대안으로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워케이션 열풍이 불고 있다. 여수와 순천, 곡성 등 워케이션 선도지역의 경우 전국적인 성공 사례로 관심을 끌고 있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로 최근 몇 년 사이 전국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은 제주, 강원 등 전통적인 관광지에 상대적으로 밀린 측면이 있지만 일부 시군의 경우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여수는 바다와 도심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해 도심·관광형 워케이션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순천만정원박람회로 올해 국내 최대 관광지로 떠오른 순천시는 국내 유일의 정원워케이션 운영으로 대박을 내고 있다. 정원을 테마로 오두막 형태의 주거시설을 운영중인데 11월까지 예약이 완료된 상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곡성군이다. 곡성군은 귀촌 청년들이 만든 협동조합 '팜앤디'가 '러스틱 타운'이란 기업 중심 워케이션 프로그램으로 성공 신화를 쓰고 있다. 관광지로서 경쟁력이 약한 점을 역으로 활용해 휴식과 관광보다는 기업 중심 서비스로 바꿨는데 대기업 등 217개 기업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워케이션 성공의 기본 전제는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인데 전남은 '전국 3대 여름휴가지'와 '50대 이상 관광소비 비중 전국 1위'라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전남지역 3개 시군의 성공 사례를 보면 지역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공통점이 있다. 워케이션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릴 대안이 될 수 있다. 정주인구도 중요하지만 갈수록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생활인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역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경쟁력 있는 워케이션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소멸의 대안을 찾는 노력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

無 等 鼓

재선거

최근 영광과 곡성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이들 지역은 재선거를 앞두고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에서 이처럼 재선거 경쟁이 불붙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통상 각종 선거에서 광주·전남은 본선의 의미가 없었다. 대신, 민주당의 후보 경선이 사실상 본선의 성격을 가졌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영광·곡성 군수 재선거가 벌써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본선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포문은 조국혁신당이 열었다.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영광과 곡성에서 1박 2일 일정의 국회의원 워크숍까지 열고, 이들 지역에서 '한달 살기'를 하며 거처를 둘러보는 등 재선거를 위한 '기선 잡기'에 나섰다. 조국혁신당의 지난 총선 비례대표 호남지역 득표율이 1위였고, 재선거가 치러지는 영광·곡성에서의 득표율은 각각 39.46%·39.88%였다.

민주당 지도부도 텃밭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전남과 광주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할 예정이다. 또 지난달 30일엔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이 순천과 영광을 찾았다. 순천에선 전남도의원들과 만났고, 영광에선 군의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한준호 최고위원도 전남을 찾았다. 민주당은 최근 호남의 무소속 단체장 등 탈당 인사들에 대한 복당도 허용했다. 통상 탈당에 대한 감점이 있지만 일부 복당자에게는 이마저도 없애주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양 당이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번 재선거가 2026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전초전이기 때문이다. 이번 재선거를 통해 조국혁신당이 광주·전남지역에서 의미있는 득표에 성공한다면 제9회 지방선거의 본선 경쟁이 가능해지고 2027년 대선의 판세에도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광주·전남지역의 민주당 일당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정치사의 큰 변화는 늘 호남에서 시작됐다. 이 때문에 더욱 이번 재선거에 나타날 '호남 표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광록 서울취재본부 부장 kroh@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24
정 치 부 220-0634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제2사회부 220-0680 디 지 털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